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28:1-9)

저들의 흥분과 기쁨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만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20:17)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여자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겠습니까? 그 답은 헬라어에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분명히 마리아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듯이 주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이제 다시는 어디도 못가십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너는 지금 곧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갈 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도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28:11-15)

가서 가르치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28:16-18)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즉시 이어서 “너희는 가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절대적인 명령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상상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라”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믿음직한 주인의 명령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세계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며,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28:19-20)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오직 예수’(Jesus-only)라는 교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명령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초대교회의 교부들 중에 유세비우스, 이레니우스, 순교자 저스틴 등은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일들에 관해서 보고서를 올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그의 역할과 로마의 입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악티 필라티’라고 불리는데, 그것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이론이 많으나 매우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저는 「산헤드린의 고고학적·역사적 문서들과 유대인의 탈무드」(The Archaeological Historic Writings of the Sanhedrin and the Jesus)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 ‘악티 팔라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발췌된 부분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 발행된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요약하여 인용하였습니다-역주)

로마의 황제, 디베료 가이사 각하에게

각하께 문안 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 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각하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神)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레리우스. 플라슈스를 계승하여 유대 총독이 된 날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속해서 빌라도는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그 나사렛 젊은이에게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자유를 주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허용된 무제한의 자유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예수가 후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 나사렛 젊은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정략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회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도다.” 또 한 번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내고 뱉내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가난한 자의 한 푼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오만한 언동에 대한 항의가 날마다 총독청에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로 불리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으며, 예수에 대한 진정서가 가이사에게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처사는 원로원에게 재가를 받은 것이었으며, 파르티안 전쟁이 끝나면 저에게 증원군을 보내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우리의 군사력이 너무도 미약한 고로, 저는 힘없이 물러섬으로써 총독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성의 평온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서신을 보내어 총독청에서 한 번 만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반아(西班牙)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이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 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모습에 어떤 특이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대에게 연설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소.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소. 그대의 말은 현인의 말이오. 그대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그대의 설교는 다른 철학자들의 그것을 능가하는 단순하고도 장엄한 힘을 가진 것 같소. 이에 대해서는 황제께서도 알고 계시며, 그를 대신하여 이 나라에 와 있는 나는 그대가 훌륭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스스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나는 그대의 설교가 강력하고도 원한 깊은 적대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려 주어야 겠소.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오. 소크라테스에게도 대적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희생물이 되었다오. 그대의 설교가 그들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것과 내가 그대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으로 그들이 나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소. 그들은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허용한 작은 권리마저도 나와

그대가 은연중에 손을 잡고 그들로부터 빼앗으려 한다면 내게 항의하고 있소. 내가 그대에게 지금 말하려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서, 이제부터는 그대가 설교할 때에 좀더 신중하고 온화한 말로 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그대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나로 하여금 그대를 제재하는 법의 도구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오.

그 나사렛 젊은이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 땅의 지배자여 그대의 말은 참된 지혜자의 말이라 할 수 없도다. 계곡을 흐르는 물더러 멈추라 해보라. 그리하면 그 멈춘 물로 인해 산의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리라. 물은 그대에게 말하리니 나는 오직 자연과 그 창조의 법에 순종할 뿐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시노라 하리라.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무궁화 꽃이 피기 전에 의인이 피를 흘리리라"

이어서 계속되는 편지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과 슬픔에 차서 총독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피가 아직 얼룩져 있는 계단을 오르다가 저는 한 늙은이가 무엇을 탄원하는 듯한 태도로 서 있는 것과 그 노인 뒤에서 몇 명의 로마 사람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발앞에 몸을 굽히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늙은 노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으며, 비록 외국사람이기는 하지만 함께 있는 로마 사람과 같이 제 마음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감정의 표현을 목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여 관 사람들이나 그렇게도 반대 증언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의 피 값을 우리에게로 돌리시오" 하고 소리쳤던 무리들도 비겁한 똥개같이 쑥 들어가버리고 시침을 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이 가르침은 바로 이 많은 군중 가운데서 실현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요구가 무엇이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저는 부관인 만류스에게 명하여 병정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제 대신 헤롯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묘실에 예수를 매장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는 또 다른 묘실을 준비하려 했던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매장된 다음날 제사장 한 사람이 총독청으로 와서 제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숨긴 후 그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사장을 친위대장인 말커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수대로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가서 배치하라고 한 후, 만일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 로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소란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커스를 불렀는데 그는 제게 벤이삼이라는 부하 장교와 100명의 군사를 무덤에 배치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자신도 매우 놀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벤이삼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제4시경이 시작될 무렵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자들이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에게 바를 향유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여자들이 파수꾼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환하고 밝게 비취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壽衣)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그는 토할 것 같았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지는 그 아래서 헤엄치는 듯하여 그의 감각은 마비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밝은 빛이 혹시 동이 트는 것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는가 물었으나 잘못 본 것이 절대 아니며 바로 돌 던져 닿을 만한 저 너머에는 칠혹같이 어두웠으며 시간 역시 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의 현기증이 잠에서 갑자기 일어남으로 흔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잠든 것은 결코 아니며 임무수행 중에 잠을 자면 사형당한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병정들은 교대로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약 한 시간쯤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이 돌아온 후 그 무덤에 가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갔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교체병이 오자마자 숙소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심문을 당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사장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었으며 파수꾼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못하였으며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말을 듣고난 후에야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화한 제사장들의 예수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사장이 더러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며 마리아의 아들도 아닐 뿐더러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란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있기도 했으며 그 후에도 여러 곳 여러 때에 걸쳐 존재했던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자연이 그 사람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배척자들에 의하여 공히 알려지고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 생전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며,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이 많은 일들과 그 이상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많은 적들이 있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는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재판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의 모든 행적과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십자가 옆에서 만류스가 말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대교부들이 증언한 것처럼 빌라도의 보고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읽은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기 위하여, 또한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땅에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재림하시리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고통과 갈등과 문제들이 산을 이루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한계시록 22:20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즉시 응답한 요한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